

“IMF수십 ‘안민가’로 풀자”

경주 충담재

신라 충담스님 오늘의 누구일까
 온 국민이 충담이 돼야한다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3월 29일, 벚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한 경주 반월성에 경각하게 웃을 차려 입은 선남선녀 3백여명이 모였다. ‘열차에 나토안 다리’ ‘기림리의 조지이슈라 일로 나릿재 벽에’ 등 얼핏 봐서는 뜻을 알수 없는 향가귀절들이 써진 오색의 번들이 불바람에 펄럭이고 흰 단에는 각종 다과와 꽃이 올려져 있다. ‘안민가’를 불러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했던 충담스님을 기리는 충담재는 흥겨운 풍물패의 장단으로 시작됐다.

충담스님은 신라 경덕왕때의 화랑이자 스님이다. <삼국유사 권2 기이(紀異) 제2>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사조’에 ‘찬기파랑가’와 ‘안민가’를 전한 스님은 배년 음력 3월3일과 9월9일 남산 삼화림에서 미륵불계 차를 올리며 국민인생을 기원했던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님이 살았던 경덕왕때는 문화가 융성했던 시기면서도 천재이변이 많았던 시기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시대 상황에서 임금과 신하가 각자의 일에 충실할 때 나라가 안정된다고 노래한 것이 바로 ‘안민가’다. 오늘날의 현실을 돌이켜 볼때 많은 가르침을 준다. 그래서 올해로 열번째를 맞는 충담재는 어느해 보다 뜻이 크다. 안민을 노래한 스님의 목소리가 신라의 하늘을 수놓고 있어도 21세기를 앞둔 오늘날의 경주 하늘에는 IMF의 수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한국다도협회 경주지부 선다회 회원들이 정갈하고 향기로운 차를 바치는 시간, 참가자들은 남산 삼화림에 올라 미륵불계 차를 공양하며 안민을 기원했던 충담이 되고자 발원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언덕위로 아스라히 펼쳐진 하늘, 저 신라의 하늘을 뒤덮었을 충담스님의 차향기를 생각하며 질문을 던진다. 신라의 충담은 오늘의 누구일까. 온 국민이 바로 충담이어야 할 것이다. 경제대란 실업대란의 시절인연을 만나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충담이 되지 않고는 지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은 아비요
 신하는 사랑할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 아이라 한다면
 만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더
 구물거리며 사는 중생들
 이들을 먹여 다스려



○경주지역 2개 문화단체가 충담스님을 기리기 위해 개최한 제10회 충담재가 3월29일 경주 반월산성에서 열렸다.

‘이땅 버리고 어디로 갈까’ 할때
 나라가 유지함을 알것입니다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국악인 박덕희씨가 낭랑히 읽어 내려가는 안민가의 구절 구절에 담긴 충담스님의 가르침과 열의. 참가자들은 숙연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며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아쉬워 했다.

그러나 그 아쉬움은 아쉬움으로만 끝날 수 없다. 지난 10년간 해마다 충담스님의 뜻을 기리고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시와 음악과 차를 바치며 다짐해 왔듯 올해도 큰 마음을 내어 다짐했다.

화랑의 후예다운 삶을 서원한 정도화랑단의 발원문이 하늘 가득 퍼지며 행사는 정점을 이뤘다.
 “후한 넷가 조약줄은 천년을 흘러 구르고 낭(郎)의 마음 뒤쫓던 달과 구름 예요으니 저의 또한 여기모여 충담사의 마음 들고 기림의 모습으로 살아갈 발원하네이다.”

경주=이윤호 기자



◆경주 선다회 회원들이 충담스님께 차를 올리고 있다.



나원리 석탑유물 ‘공개’ 통일신라 금속공예품 금동소불상·금동소탑등 20여점 보존처리



○금동소불상
 화엄광배에 시무와 여원인을 취하고 있는 금동불입상. 앞면은 금동불입상. 앞면은 금동불입상. 앞면은 금동불입상.

1996년 3월 경주 나원리 5층석탑 해체과정에서 발견된 금동사리함과 이 사리함에 들어있던 금동불상, 금동소탑 등이 보존처리를 마치고 공개됐다(관련기사 본지 71호 1·6면, 80호 1면).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가 3월27일 공개한 유물들은 △금동사리함 △금동소탑 4점 △금동소불상 1점 △공예품 △금동소탑 1점 및 파편 △구슬 등 총 20여점.

이 가운데 시무와여원인(모든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소원을 풀어준다)을 취하고 있는 금동소불상(높이 4cm, 무게 20g)은 발견 당시 손금제 불상으로 추정되.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X선에 의한 분석 결과 금·동과 함께 수은 성분이 검출돼 도금된 금동불상이 밝혀졌다. 이는 통일신라시대에 등을 녹이기 위해 수은을 사용하는 금제련술이 크게 발달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유물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4기의 금동소탑 중 거의 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3층소탑(높이 10.6cm)은 단층기단에 열라장상이 있는 상륜부와 육계(지붕) 네곳의 공적이 잘 남아있어 상륜부가 대부분 소실된 신라석탑 복원에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나머지 3점의 다층소탑(높이 8.6cm~8.8cm)들은 황룡사 9층목탑을 축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소탑의 크기도 황룡사탑(약 80m)과 비례를 이루 서로의 연관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밖에 금동사리함(15x15x15cm)은 일부분의 도금막이 벗겨졌으나 섬세한 선각으로 바깥 사방에는 사천왕상을, 두면에는 연화당초문을 새기고 있다. 사리함 안쪽 벽면에 붙어있던 중이파편은 금의 일부내용으로 보아 불국사 석가탑이나 화엄사 5층석탑에서 나온 ‘무구정광대다라니경’으로 추정된다. 또 사리함에서 발견된 목제소탑(높이 10.5cm)은 기단부를 비롯한 일부분이 결실했으나 탑신부와 상륜부는 남아있으며 금동사리함에서 수습된 소탑들 중 완형은 1점(높이 4.3cm)이고 대부분은 앞면편으로 파손된 상태다.



○금동소탑
 영락이 있는 상륜부와 지붕들의 공적이 사시미를 더해주는 금동3층소탑. 다른 다층소탑들과 함께 신라말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윤경렬선생이 들려주는 ‘충담스님’ “왜 충담스님은 왕의 곁을 떠났을까”



○충담스님과 경덕왕의 일화를 들려주며 ‘왜 충담스님은 왕의 곁을 떠났을까’ 화두를 던지는 윤경렬음.

충담스님은 신라35대 경덕왕때 사람입니다. 경덕왕은 742년부터 765년까지 24년동안 재위를 누렸는데 불국사와 석굴암이 세워졌고 성덕대왕신종이 제작된 시기입니다. 남산 금동정(佛松亭)에서 거문고를 타던 봉황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는 육보고니 길에서 파리를 불면 흐르는 달도 길을 멈추어 춤고 갔다는 월명스님도 모두 이때 사람이지요. 충담스님은 도술가를 지은 월명스님과 향가를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태평성대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충담스님은 찬기파랑가를 지은 시인이었으며 동시에 화랑도였습니다. 무릇 화랑들이 그러하였듯 스님도 무술과 풍류에 능했습니다. 스님은 ‘안민가’와 ‘찬기파랑가’ 등 향가2편과 임금과 국민에게 보내는 법문과도 같은 이야기 한자락을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해 합니다.

삼할삼할 경덕왕은 귀경문루에 올라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내가 훌륭한 스님을 만날 인연이 있는 날이다. 누가 위(威)있는 훌륭한 스님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위풍이 당당하고 좋은 웃을 입은 스님이 지나가기에 모셔오라니 왕은 “내가 만나려는 위(威)있는 스님이 아니다”면서 스님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한스님이 헤어진 장상에 영봉(영두나무를 혹은 삼태기를 쪼갰고도 함)을 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신하들은 왕이 초라한 모습의 스님을 찾았리 없다 싶어 내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저 삼태기를 베고가는 비구를 불러오라”고 명했습니다. 왕은 스님을 보더니 반가워하며 “어디서 오시길요?”하고 물었습니다.

“네, 저는 해마다 중삼(重三) 중구일(重九日)이면 남산 삼화림 미륵세존계 차를 달여 공양에 왔습니다. 오늘이 삼월 삼십삼일이라 차를 달여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그차를 나에게도 한 사발 줄수 있겠소?”
 “부처님은 만 중생의 어버이이시고 임금님은 만 백성의 어버이입니다. 어찌 차를 아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중도를 내려 술뿔을 파우고 물을 끓여 차를 타서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차맛이 신비스러웠고 사발에서는 오랫동안 향기가 풍겼습니다.

왕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내 충담이라고 합니다.”
 “오! 자유명만 찬기파랑가를 지으신 충담이시요?”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백성들을 편안히 할 노래를 한수 지어주시오.”
 스님은 그 자리에서 노래를 지어 읊었는데 그 노래가 ‘안민가’입니다.

경덕왕은 만족하여 “내 그대를 국사로 모실터이니 대궐에 있어 달라”고 청했지만 스님은 다구를 주섬주섬 거두더니 “중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면서 두 번 절하고 도망치다시피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충담스님은 왕의 곁을 떠났을까요?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사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따뜻한 햇살! 밝은 웃음! 튼튼립축제!
에버랜드에서 아미타전을???
 모래와 즐거움이 있는
 「에버랜드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독자 IMF 할인가격으로
 아미타전 도 보시고
 에버랜드 도 즐기고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8월 30일까지. 방생도 가능합니다)

상품명	수량	일반가격	이번 가격	수량	이번 가격
아미타전	13,000	11,000	8,500	6,500	8,000
아미타전 1	17,000	15,000	11,500	7,000	8,000
아미타전 2	17,000	15,000	11,500	8,500	7,000
아미타전 3	27,000	20,000	16,000	13,000	10,000
아미타전 4	27,000	20,000	16,000	14,000	11,000

● 공동주관: 현대불교신문사, 삼성에버랜드, 호암미술관
 ● 문의·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전화: 01-732-1522, 737-8881 팩스: 737-0697, 737-0698)

봉축 현수막
 ○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에 아기 부처님을 칼라로 넣어서 제작해 드립니다.
 ○ 공적이 폭넓어 미리 주문을 받고 있으니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 가격:
 6m x 90cm = ₩35,000 (그외의 현수막은 상담후 결정)

불기 2542년
奉 부처님 오신날 祝
 대한불교 ○○종 ○○사
 ※ 현수막 1장 주문하시면 등꼬리포 100장을 드립니다.

한울기획
 ◆전화: (02)474-2040~1
 ◆FAX: (02)477-2316
 조흥은행 임미순
 435-06-085707